사라진 활판인쇄 되살린

'활판공방' 박한수 대표

글 · 사진 **윤승일** nagneyoon@hani.co.kr

그 많던 인쇄소는 다 어디로 갔을까?

연필에 침을 묻혀 꾹꾹 눌러 쓴 공책의 글씨가 선명한 것은 단지 농암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글씨를 쓴 이의 정성이 함께 전해지는 탓일 것이다. 공책의 서정은 서재에서 한 30년쯤 묵은 책에서도 똑같이 느껴진다. 색 바랜 종이 위에서도 글자는 선명하다.

1980년대 들어 컴퓨터가 인쇄 공정의 조판부문에 도입되고 활판인쇄 역시 오프셋 방식의 첨단 기술에 밀려나기 전까지만 해도 인쇄소 풍경은 대동소이했다. 벽을 가득 채운 납 활자와 넥타이에 안경을 쓴 인쇄공…… 그리고 무쇠덩어리에 비견할 수 있는 인쇄기는 '철커덕 철커덕' 거리며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를 빼곡하게 담아 토해내곤 했다.

활판인쇄가 책을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시대, 그러나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활판인쇄는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컴퓨터는 납 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글씨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원도를 그리고 주조기를 거쳐 납 활자를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공정은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오프셋 인쇄기의 도입은 활판인쇄의 더딘 속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화려한 칼라의 구현도 자유로웠다. 동네 한 켠에 의례 있었던 작은 인쇄소들이 사라졌고 대형인쇄소들은 서둘러 신형기계들을 도입했다. 활판인쇄의 소멸과 대량인쇄가 가능한 오프셋 인쇄 방식의 보급은 책 또한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자본주의 양식에 맞는 재화로 만들어버렸다.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 등등이 지배하는 시대에 여러 사람들의 솜씨에 기대어야 비로소 책 한 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활판인쇄는 아무리 활자가 읽기 좋고 책장마다 필자와 함께 책을 만든 장인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해도 어울리지 않는다. 수익성이 우선시되는 시대에 적자가 뻔한 활판인쇄는 미친 짓일지 모른다. 박한수(42세, 활판공방 · 시월출판사 대표) 씨는 그 미친 짓에 뛰어들었다. 파주출판도시, 첨단의 건물들이 줄지어 선 한 켠에 자리 잡은 활판공방은 박 대표의 무모하지만 의미 있는, 누군가가 해야 할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다.

납 활자를 모아 놓은 선반. 활판공방에는 약 60만개의 납 활자가 보관돼 있다.

100명의 시인을 활판으로 담는다

장맛비가 잠깐 쉬는 한 여름날 늦은 저녁 활판공방을 찾았다. 단층 건물 앞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 〈소년〉을 인쇄한 인쇄기가 임옥상 씨의 설치미술이 되어 활판공방을 상징하고 있었다. 활판공방 입구 나무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문 이들은 언뜻 봐도 칠순은 훌쩍 넘겼을 법하다. 활판인쇄의 마지막 장인들인 그들을 모은 이 역시 박 대표다. 그들을 쫓아 들

어 간 활판공방에는 책 한 권 분량의 납 활자와 이제는 역사를 다한 청타기, 수동형 사진식 자기, 그리고 활판으로 인쇄된 책들과 이름과 기능을 알지 못할 기계들이 박물관처럼 방문객을 맞는다. 입구를 지나 들어 선 방, 잉크 때를 뒤집어 쓴 옛 활자들과 새롭게 만들어져 아직은 은빛으로 빛나는 활자들이 문선공의 손길을 기다리며 빼곡하게 방을 채우고 있다.

한쪽에 놓인 인쇄기는 금방 작업을 마쳤는지 잉크 냄새를 한숨처럼 내쉬며 휴식을 맞이한다. 방에 놓인 기계들은 붉은 쇠 본래의 색으로 놓여 지나온 세월을 증명한다. 유리로 벽을 한 한쪽 방에서는 두꺼운 돋보기를 쓴 노인이 이제 막 인쇄를 끝낸 책을 묶고 있었다. 일일이 손으로 풀칠을 하고 칼로 한 권 한 권 튀어 나온 면지를 잘라내는 수작업은 느렸지만 경건했다. 활판공방 시인 100선의 10번째 책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납으로 활자를 만드는 주조(鑄造)부터 60여만 자가 빼곡히 들어찬 활자 선반에서 글자를 골라내는 문선, 글자를 배열하는 식자(植字, 조판)와 인쇄 · 접지 · 제책에 이르는 공정은 거의 수작업으로 전통 활판인쇄 전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 만들었다. 시인들은 이 책의 첫 장에 친필을 남기고 책의 말미에는 지금은 사라진 인지를 붙인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인선은 종류별로 1천부만 만들어진다. 책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이들 만이 간직할 수 있다.

책을 만드는 인쇄공들은 장인의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이들이다. 60~70대의 장인들은 평생 인쇄밥을 먹었다. 첨단에 밀려 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의 작업이 문화재로 남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들의 고집이 고맙고 이들을 모아내고 이들의 작업을 살려 낸 박 대표의 정신은 그 어느 보물보다 소중하다.

우리 옛 책의 맥을 잇는다

"자갈밭에 돌 하나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하이테크 시대가 아니라 하이터치 시대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팔순을 넘긴 장인들의 솜씨는 기술로는 흉내 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만 책을 제대로 만들려면 책 만드는 공정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지요" 박 대표의 말에는 사라진 활자를 추억할 줄 아는 '쟁이'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 정신은 책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만이 간직할 수 있는 고집이다.

▶ 활판공방 시인 100선의 제본 모습, 종이 한 장 한 장에 장인의 숨결이 묻어 있다.

▼ 활판으로 펴낸 시인 100선의 모든 공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활판인쇄기를 시연해 보이는 박 대표. 직접 인쇄방식인 활판인쇄는 글자에 압력이 남아 선명해서 가독성이 좋다.

활판공방 시인 100선은 한지로 만들어진다. 한쪽 면만 인쇄해 접지 후 제본하는 방식은 우리 옛 책의 제작 방식 그대로다. 한지를 고르기 위해 박 대표는 전국의 한지공방들을 다 뒤졌다. "전주의 한지는 화선지에 가깝습니다. 인쇄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원주한지는 생활용지로 적합하지요" 그렇게 찾아낸 것이 경남 의령의 신반한지. 압력을 가해 인쇄하는 직접인쇄방식인 활판인쇄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박 대표의 판단이었다.

속도와 효율성이라는 시대 흐름에서 박 대표가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대학원 시절 논문을 쓰기 위해 정병규(정디자인 대표) 씨를 만나면서부터다. 1995년부터 약 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박 대표는 북 디자이너로서 기본으로 갖춰야 할 책 만드는 일을 배웠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자랑 이전에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전국을 돌아다녔다. 동대문 시장 한 켠에서 활자와 활판인쇄기를 구입할 때 만났던 노인을 박 대표는 잊지 못한다.

"기계 옆에 막걸리 3병을 놓고 홀로 제를 지내더라고요, 새 주인 만나서도 잘 돌아가고 돈 많이 벌게 해 달라는 축원이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활판인쇄와의 인연은 시골 논을 팔아 뒷돈을 대야 할 정도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만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기계를 놓을 공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었지요" 전셋집 뜰과 한적한 인쇄소 창고로 전전하던 활판기계들이 제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파주출판도시의 배려가 있었다. 그래서 수시로 찾아 드는 실습생이며 견학자를 안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일에 방해가 되더라도 최첨단 파주출판도시에서 우리나라 인쇄술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조차도 박 대표에게는 행복이다.

"사명감 이런 것 우습지요. 실제로 보세요. 활판으로 만든 책이 결과물이 우수하거든요" 박 대표는 책은 무엇보다 읽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북 디자인도 결과적으로 독자들이 읽기 좋게 만드는 전 과정이라는 말이다. 물론 박 대표 말에 동의하기 위해선 '경제적' 이란 단어를 지워야 한다. 당장의 경제성만을 앞세우다가는 후일의 경제성을 잃게 된다. 책을 만드는 데 흔히 쓰이는 종이조차도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수입을 하고 있다. 천 년

납 활자를 만드는 주조기 앞의 박 대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주조기다.

을 가는 우리 한지 조차도 생산하는 기업이 없을 정도다.

기술에 종속되지 않아야 문화도 있다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기술에 종속됩니다. 지금 책 만드는 과정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우리기술이 없어요." 기술에 종속되면 문화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박 대표의 걱정이다. 활판공방을 연 이후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많은 이들이 활판공방을 다녀갔다. 이들은 대부분 무언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찾아오라는 말을 남긴다. 그러나 아직 박 대표는 이들을 찾아 간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거리를 주는 것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활판은 경제적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정신적 가치가 기준이 돼야지요" 도와주고 싶다면 '만들어 놓은 책이라도 사주면 되는 일인데' 라는 말을 할 법도 한 데 박 대표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

"책을 만드는 일은 월인천강(月印千江) 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에 새겨지는 데 각 강에 새겨진 달의 모습은 물결이나 다른 요인들로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천 개의 강에 비추는 달은 하나지요" 박 대표의 말을 이해하려면 "이순신은 기억하지만 이순신을 있게 한 거북선을 만든 장인을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이상한 문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 수긍해야 한다.

박 대표는 사라져 숨이 끊길 지경인 우리의 활판인쇄에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는 역할을 했다. 산소 호흡기를 떼 내고 자력 호흡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이들의 몫이다. 박 대표에게 가장 큰 고민은 현재 함께 일하는 장인들이 고령인데 뒤를 이을 후계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의 5대 교도소까지 돌며 모아 놓은 활판인쇄 기계들을 운용하고 손봐줄 인력도 사라지고 있다. 활판인쇄 장인들의 솜씨를 무형문화재로 인정해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낡은 기계들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면 세계 최초 금속활자의 맥을 잇는 활판인쇄의 대를 이을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박 대표의 희망에 불을 지피는 일은 하루하루가 급하다.

글 **윤승일** |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며 현재 〈한겨레21〉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